

[인쇄하기](#)[인쇄하기](#)[창닫기](#)

全羅日報

[HOME](#) [교육](#) [대학](#)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선정

2018년 05월 10일 (목) | 이수화 기자 | waterflower20@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7년 동안 총 84억 원(매년 약 11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고 '미래 공동체의 대안'의 인문학적 연구와 인문화 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유교문화를 재사유해 가족해체, 인구절벽, 4차 산업화 등 미래 공동체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탈유교 사회임에도 여전한 유교문화를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으로 성찰한다.

'인문학 대중화'는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에서 신설한 '온다라 인문학센터'를 거점으로 이뤄진다. 지역 인문 자산으로 지역 밀착형 강좌와 교육, 중고등학생을 위한 강좌, 소외계층을 위한 강연을 운영한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여러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한국고전번역원 문집번역, 유학자 자료수집 및 DB 구축 등. 올해는 전북에서 유일하게 HK+사업에 선정됐다./이수화기자 · waterflower20@

이수화 기자 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 인쇄

[HOME \(/\)](#) > [교육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8\)](#) > [대학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58\)](#)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지원 사업 선정

呂 정병창 | ⓒ 승인 2018.05.10 16:36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로써 한국고전학연구소는 향후 7년 동안 매년 약 11억 8,000여만 원 등 모두 84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학 관점으로 '미래 공동체의 대안'에 대한 연구와 인문화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는 유교문화의 재사유를 통해서 가족해체, 인구절벽, 4차 산업화 등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으로 성찰하게 된다.

'인문학 대중화'는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에서 신설된 '온다라 인문학센터'를 거점으로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해 지역 밀착형 강좌와 교육프로그램, 중·고등학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을 운영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소장은 "이를 통해 인문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한

국학의 선진 연구소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외 학술기관과의 교류 확대, 지자체와 연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인문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고전학연구소는 그간 여러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춰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 한국고전번역원 등의 문집번역, 유학자 자료수집 및 DB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HK+사업에 선정되며 명실상부 전북 최고의 인문학 연구소로 자리매김 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병창 기자

▶ 인쇄

인쇄하기

인쇄

[HOME](#) > [사람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에 선정

김종표 | 승인 2018.05.10 18:59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는 앞으로 7년 동안 총 84억 원을 지원받아 인문학 관점의 '미래 공동체의 대안'에 대한 연구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문한국 플러스는 대학 내 인문학연구소를 지원하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유교문화의 탈영토화, 공존의 인간학과 미래 공동체'라는 주제로 유교문화의 재사유를 통해 가족해체, 인구절벽, 4차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지역의 인문 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밀착형 강좌와 교육 프로그램, 중·고 교생을 위한 인문학 강좌, 소외계층을 위한 인문학 강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주승 소장은 "HK +사업을 통해 인문정신의 창조적 계승과 함께 한국학 선진 연구소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표 기자

🖨️ 인쇄